

#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성과 임신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Pregnancy and Sexual Behaviors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연구원  
천혜정\*\* · 배선희 · 송말희 · 송현애 · 전길양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Research fellow  
Cheon, Hye-Jung · Bae, Sun-Hee ·  
Song, Mal-Hee, Song, Hyun-Ae, Jun, Gil-Ya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institutionalized, unmarried teenage mothers. Through 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 have explored their feelings and values about pregnancies, sexual behaviors, contraception, babies, adoption, babies' fathers, and their own families. Ten unmarried teenage mothers, who were residing in welf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Kyonggi, and Kangwon, were interviewed.

It turned out that the teenage mothers we interviewed had given little to no thought about pregnancy and contraception at the time of conception. They contradicted themselves on a number of points. Since most of the fathers denied their responsibilities, the mothers were angry with the babies' fathers. At the same time, they felt humiliated about having to inform the babies' fathers about their pregnancy. They felt simultaneously sorry and resentful toward their own parents. They cared about their babies, yet they regretted not having had an abortion.

Listening to what these mothers say will help the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to explicate certain preconceptions and prejudice about them, and to improve policies and services for them.

---

▲ 주요어(key words) : 십대 미혼모(unmarried teenage mothers), 임신(pregnancy), 성행동(sexual behavior)

### 1. 서론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인한 10대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여학생이나 10대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가 한강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개탄

하며 성교육의 부재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 당사자의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고통이자 낙태, 입양 등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미혼모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들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데는 성

\* 이 연구는 2001년도 보건 복지부 연구비 지원에 의함  
\*\* 주저자 : 천혜정(E-mail: wolves21@hananet.net)

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혼 여성의 임신률을 감소시키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미혼모의 인공 유산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혼모의 연령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sup>1)</sup>

특히 10대 미혼모들은 다른 연령층의 미혼모들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10대라는 상황 때문에 산전 관리(産前管理)가 소홀하고,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여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 등에 시달리게 되고, 학업을 중단하는 등 기존의 생활 양식에서 이탈하여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안정된 상태에서의 출산을 어렵게 하고 출산 이후에도 불안정한 생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혼모의 문제는 단순히 성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다. 혼전 임신에 의해 미혼모가 됨으로써 여성 자신의 삶이 왜곡되는 과정을 겪으며, 출산 후 자녀를 포기하는 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을 포기하게 되며, 또한 낙태 등의 방법으로 아기를 출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포기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미혼모 보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통계 조사에 집중되어 왔다(이석재, 1985; 김부자, 1986; 주연옥, 1997; 한영주, 1998; 윤미현, 2000). 이러한 연구가 개괄적인 미혼모의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미혼모들의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즉 10대에 임신이라는 경험이 이들의 삶에 총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왜 이들이 10대에 적극적인 성행동을 하게 되는지, 임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시설에 입소하게 되는지, 아기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지, 아기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출산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이를 통해 10대 미혼모로서의 경험의 본질과 삶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해는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고, 10대 임신의 예방을 위한 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혼모 중 15세에서 19세의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4년도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24.9%이던 것이,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보고에서는 49.7%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10여년 사이에 그 비율이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 II. 10대 미혼모의 실태와 특성에 대한 관련 연구들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국 34개 입양 기관, 10개 부녀 아동상담소, 3개 미혼모 시설의 미혼모 14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1996년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에서 3개 입양 기관과 7개 미혼모 시설의 미혼모 2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그리고 1998년 애란원에서 7개의 미혼모 시설에 입소해있는 198명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 미혼모들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10대 미혼모의 실태와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6년에는 미혼모 중 40%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8년도에 이 비율은 75%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학력도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10대 미혼모들이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특별한 지도가 없으면 재임신이나 유흥업 등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둘째, 1996년의 조사를 보면 10대 미혼모의 94%가 첫 번째 임신이었으나, 나머지 6%는 10대에 이미 두 번의 임신을 경험하였다. 20세에서 26세 사이는 62%만이 첫 번째 임신이고 27세가 넘으면 30%만이 첫 임신이다. 이는 10대에 임신을 한 경우 근시일 내에 또는 20대에 재임신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1984년도에는 임신 3개월 이전에 인지한 미혼모가 약 50%내외이나 1998년도에는 이 비율이 37% 정도로 낮아졌으며, 임신 6개월 후에 인지한 미혼모도 30%나 된다. 이것은 이들이 임신이나 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자의 건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처음 성관계를 가진 연령이 10대인 비율도 1984년의 47.4%에서 1998년에 76.4%로 증가하였으며, 성관계를 갖게 된 이유는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또는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70% 내외)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간이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1984년 14%, 1996년 19%, 1998년 30%). 또한 이들이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피임에 대해 몰랐거나(1984년 34.1%, 1996년 40.1%), 피임할 시간이 없어서(1984년 32.1% 1996년 18.7%), 그리고 성관계를 예상치 못해서(1984년 1.9%, 1996년 22.9%)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피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미혼부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1984년도에는 10대 미혼부의 비율이 4.8%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도에는 30%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혼부에게 임

신 사실을 알린 경우는 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70% 정도가 미혼부와 헤어져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여섯째, 미혼모의 부모들 중 과반수 이상이 자녀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84년 48.0%, 1996년 62.9%). 그 중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냉대하기도 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미혼모 자녀에 대해 동정적이며, 특히 미혼모들은 출산 후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맞는 부모들의 역할이나 태도가 미혼모의 적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곱째, 10대 미혼모들은 절대 다수가 입장을 결심하는데, 혼자 양육하겠다는 미혼모들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1984년 2.7%, 1996년 4.5%).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과반수를 차지하지만, 아기의 장애, 자신의 학교, 그리고 주위의 시선 때문이라는 이유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사회에 바라는 점 중 양육 지원이나 위탁양육시설 제공이 1984년도에는 5.5%에 그쳤으나, 1996년도에는 16.5%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도움과 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임신 이후 미혼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마음의 혼란, 아기 문제, 주위의 시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산전후 보호 시설, 의료 혜택,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가족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들고 있다.

아홉째, 10대 미혼모의 임신 관련 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 및 미래 직업이나 교육적 성취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성 가치관의 변화, 또래 집단의 압력 등의 사회적 욕구(Levering, 1983; Newcomer, Gilbert, & Udry, 1980), 청소년을 위한 여가 시설의 부족과 성 자극물의 범람 및 성교육의 부재(이석재, 1985), 낮은 자아 존중감(Davis, 1980; Ktsanes, 1980; 한영주, 199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2001년 8월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0대 미혼모 10명이다. 현재 보건 복지부에 등록된 미혼모 보호 시설은 전국적으로 7군데가 있으나, 지역적 거리 문제로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시설만을 선택하였다. 이들 시설은 미혼으로 임신, 출산하여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숙식 보호, 상담, 교육 등의 필요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다. 우선 각 기관의 시설장과 전화로 접촉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소개한 후, 인터뷰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며칠 후 각 시설에서 연

락이 온 바 서울 소재 기관에서 2명, 경기 소재 기관에서 4명, 강원 소재 기관에서 4명의 미혼모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혼모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터뷰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성명 (가명)	연령	학력	임신전 주거형태	면접시 임신월수	가족 관계
김명숙	16세	중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출산*	아버지, 오빠, 동생 2 (부모님이 이혼한 후 아버지와 살고 있음)
하나영	17세	중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9개월	아버지, 어머니, 동생 3
이아현	17세	중학교 중퇴	남자친구와 동거	9개월	아버지, 어머니, 동생 2
배은현	19세	고등학교 재학중	혼자	출산**	어머니, 오빠 (부모님이 이혼한 후,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나 적응하지 못하여 혼자 살다가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됨)
이선정	17세	고등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9개월	아버지(부모님은 1년 전에 이혼하였고, 남동생은 어머니와 동거함, 어머니와는 연락 두절)
김희정	16세	중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9개월	어머니(부모님은 이혼하였고, 동생은 아버지와 친가쪽 친척들과 살고 있음; 어머니가 동거하는 남자가 있음)
지운수	16세	고등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9개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동생
손효진	18세	고등학교 졸	가족과 동거	9개월	아버지, 어머니, 언니 2, 오빠 2
박선주	16세	중학교 중퇴	가족과 동거	8개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가출함)
이선호	19세	고등학교 졸	여자친구와 동거	9개월	無(태어나자마자 버려져 교회와 절 등에서 길러짐)

\* \*\* 출산한지 약 한 달이 되었고, 산후 조리 중에 있으며, 아기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정함.

#### 2. 인터뷰 질문 및 진행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인터뷰이다. 4명의 연구자 각각이 1명씩의 미혼모를 개별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각 인터뷰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인터뷰는 일상적인 이야기와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 등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참가자들의 경계심을 없애는데 노력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밟았다.

10대라는 점, 그리고 임신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시간을 요하는 비구조적인 완전 개방 인터뷰보다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몇 가지 구조적인 질문을 준비하였다.

첫째, 임신과 관련된 질문들으로써 임신을 하게 된 상황, 임신을 확인하게 된 경위, 임신한 것을 처음 알았을 때의 느낌, 임

신 이후의 행동, 피임, 그리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둘째, 미혼부와 관련된 질문들로서 아기 아빠와의 관계, 아기 아빠와의 현재 상황, 아기 아빠의 임신 인지 여부 및 이유, 아기 아빠에 대한 현재 감정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셋째, 아기와 출산에 관련된 질문들로서 낙태를 하지 않은 이유, 아기에 대한 감정, 아기와 관련된 결정 사항 및 이유,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넷째,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로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가출 경험, 시설에 입소하기 전의 하루 일과, 가족에 대해 떠오르는 느낌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및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 그리고 기타,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 III. 10대 미혼모들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 결과

#### 1. 성과 임신

##### 1) 임신이 되던 날/임신을 확인한 날

본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은 성관계의 결과로 임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만은 예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신이 되던 날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진짜 열떡같이었어요. 애 아빠는 한달쯤 만났 친구인데 일주일 사이에 딱 두 번 했어요. 남자 친구한테 지금 하면 임신할지도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글썄, 그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하게 되고, 그게 10월쯤이고 12월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지나가고, 여음이 돼서 하복을 입으니까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아빠도 알게 되고, 아빠가 시약을 사여서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어서 수술 못해준다고 하면서 여기를 소개시켜 줬어요.” (이선정, 17세)

“애기 아빠는 안지는 한 1년 되구요, 사귄 기간은 한 3개월, 그리고 사귄지 한달 정도 됐을 때 처음 잤구요. 그리고 나서 매일 했어요. 배알기라는게 뭔지는 아니까 이렇게 자주 성관계를 가지면 지금은 좀 위험한데 이런 생각은 했지만 그런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했어도 아마 오빠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리가 석달째 안나와서 그 때 딱 알았어요. 그래도 병원 가는데 무서워서 그냥 지냈는데, 6개월쯤 학교에서 소변 검사를 하는 바깥에 선생님이 알게 되고, 선생님이 언니한테 말했죠. 여기 오기 전에 애 띠려고 언니랑 병원 다녔는데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로 가라고 소개해줘서 여기 오게 됐

어요.” (김희정, 16세)

“제가 이성애 관련한 관심이 없었는데 친구 땀에 한 번 사귀다가 그냥 호기심에 처음 자 봤는데, 한 번 잤거든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의외였어요. 저 땀에는 ‘한 번 했다고 되겠어’ 생각했는데, 7개월째 언니가 제가 생리대가 안 보이고 겁이 났는데 목욕하는 걸 보곤 아셨어요. 어느 개인 병원에서 애기 낳아야 한다고, 여기 미혼모 시설이니까 애를 낳기라고 해서 오게 됐어요.” (지운수, 16세)

인터뷰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은 대부분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마’하는 생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주변의 친한 친구 몇몇과 걱정을 하다가 우연히 가족이나 주변에서 이상함을 발견한 후 병원을 찾아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즉, 임신 초기와 중기에는 자신의 임신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막연함과 두려움 속에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냥 8개월이구나.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전학을 간 직후라 친구들 사귀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때는 진짜 배가 안나왔어요.” (이선정, 17세)

“나만 재수없게. 솔직히 나만 이렇게 하는거 아니잖아요. 거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임신 안되는 사람도 있는데, 나만, 그것도 남자친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애 아니라고 도망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계단에서 일부러 굴러보기도 하고, 친구들이 밝기도 하고, 애기 신경도 안쓰고 숙역고 닦배피고 그랬지요” (김희정, 16세)

임신 사실을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시기는 미혼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아닐거야’ 라고 부정을 하거나 믿기 싫어하면서도 스스로는 인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인지를 한 순간과 가족이나 기타 사회적 도움이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순간과 시간적으로 큰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10대 임신부의 낮은 산전 진찰률을 가져오고, 음식이나 약물을 조심하지 않고 먹거나, 건강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여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게 되고, 결국 아기나 산모의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석재, 1985). 따라서 출산을 결심하게 된 동기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나, 임신 중절에 드는 비용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 2) 성행동

본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의 경우 아기 아빠가 성경험의 첫 상대였다는 경우부터 이전에 다른 사람과 성경험이 있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첫 성관계를 가진 상대는 만

난지 몇 개월된 친구에서부터 잘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나 첫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힘든 결정일 뿐 그 이후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에 아빠가 첫 상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한 것은 집을 나왔다가 갈 곳이 없어서 친구가 아는 오빠네에 있었는데, 그 오빠랑... 오죽 갈 곳이 없었으면 낚자 혼자 사는데 가서 잤겠어요.” (김희정, 16세)

“아기 아빠하고 딱 3번 자랐어요. 묵은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관계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낚자가 기본이 나뉘는데 여자도 느낌이 있잖아요. 이 낚자가 낚 뉘로 보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요.” (하나영, 17세)

그러나 10대에 성경험을 하는 경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아 그 관계가 불안정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따라서 결혼 전에 여러 사람과 불규칙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듯 하나, 상대방 남성의 설득이나 강요에 의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이 좋아하니까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설득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냥 남자 친구가 하자고 하니깐 술먹고 많이 해요”(이선호, 19세)라거나 “오빠가 처음에 하는 거는 임신이 잘 안되는거라고 해서”(손효진, 19세)와 같은 이야기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의 성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솔직히 성관계에서 재미는 모르겠어요. 낚자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낚자애를 좋아하는데 안된다고 하는 것도 쏠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번 하게 되고 한번 하게 되면 다음에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거죠.” (이선정, 17세)

여성의 성행동은 상대 남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특히 10대 여자 청소년들은 상대 남성이 유도하는 대로 성행동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Wagner, 1980).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 상황이 분위기에 휩쓸려서와 상대방이 원해서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도 여학생이 성에 대해 수동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분위기’라는 요인은 청소년의 성행동과 관련되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윤경자, 2002), “분위기라는 것 때문에”(이선정,

17세), “엄마아빠 없을 때 집에 와서 밥만 먹고 가라 그럴려고 했는데 혼자 있기도 무섭고, 방에 같이 있다 보니까”(손효진, 18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볼 때 ‘분위기’라는 것이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분위기가 음주와 더해져 통제력과 절제력을 잃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상대 남성과 분위기 이외에 또래 집단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또래끼리의 가출 경험은 유흥업소의 출입을 잦아지게 하고 있으며, 이성과의 혼속도 3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가출이 성비행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옥란·공미혜·홍봉선·남미애·장수한, 1998).

“낚자 친구 사귄거는 중학교 때부터인데 그때는 낚자랑 자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어쩔하다가 집을 나오게 됐는데 같이 나온 친구가 쏠 그런 친구였어요. 같이 지내면서 그 친구가 낚자랑 자는 것음 많이 봤어요. 그러면 안된다 생각은 하면서도 조금씩 무너진 것 같아요” (김영숙, 16세)

“중 2때부터 서너 번은 가출했어요. 낚 먹구 나갔다가보다는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가기 싫구 하루 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그게 싫어서. 놀다가 못 들어갔어요. 11월인가 오악실에서 안 언니랑 부산에 놀러 갔어요. 언니 동생이 있는데요. 그 동생의 친구가 아이 아빠예요. 부산에서 술먹구 이차로 그 오빠 친구들 중에 그 오빠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 자취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술 먹으려구 놀러 갔는데 술 먹구 자다가 그렇게 됐어요.” (박선주, 16세)

이미 Young은 1964년에 혼전 임신은 주로 또래 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으며, Newcomer, Gilbert와 Udry(1980)는 10대의 성행동은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또래 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김부자(1986)는 임신하지 않은 미혼 여성과 임신한 미혼모의 혼전 성태도 비교에서 미혼모의 친구들이 일반 미혼 여성의 친구들에 비해 성경험이 많았고, 개방적인 성태도를 지닌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결과는 한국여성개발원(1984)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친구들의 성태도가 10대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인터뷰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은 상대 남성이 원해서, 특히 좋아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분위기와 같은 상황적 요인, 음주, 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 등이 성적 의사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성교제를 하는 것, 음주와 같은 문제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3) 피임

설마 내가 임신할까라는 생각에서 엿볼 수 있듯이 피임 역시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과 피임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피임 기구를 구입할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전히 피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피인하면 애들이 임신 안하게 하는 거. 그런 정도구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저도 약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런 거 자세하게 아는 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가질 땐 사 용을 안 해요. 피인 안하고 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개들이 임신을 안 하니깐 당연히 저두 임신 자체가 저하고 관련 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운수, 16세)

“친구들은 이거 한 번 한대구 임신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성관계할 때 너무 급하게 했기 때문에 피인 생각할 겨우 없었어요.” (김명숙, 16세)

한국성문화연구소가 실시한 연구(1996, 1997)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나타난다. 조사 대상자 중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자 고등학생 가운데 52.2%가 피임하였다고 한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4%에 그치고 있어 임신의 부담을 갖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오히려 피임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혼모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 조사(서울시부녀복지연합회, 1996)에 의하면 미혼모들은 친구, 학교, 월간 잡지 순으로 성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친구로부터 얻는 성지식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 순으로 나타난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성에 관한 지식 중 특히 피임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성 지식 습득 경로로 학교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나, 어떠한 내용이 교육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그 효율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 가정은 여전히 성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남아 있는데, 잘못된 성지식이 자녀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볼 때 부모도 또한 자녀들 성교육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의 피임과 관련된 경험 속에서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피임약도 소용없다고 하대요”(이아현, 17세), “술먹고 하면 임신이 안된다고 해서”(박선주, 16세) 등과 같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피임에 대해 정확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밤에 하고 나서 날짜를 따져 보니까 배란일이잖아요”(손효진, 19세)와 같이 자신의 생

리와 배란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피인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10명중에 한 명 있을까말까. 진짜 임신하는게 힘들잖아요. 임신이라는 거 자체가 재수 없으면 되는거고. 남자한테 끈뽀해나, 누가 좋아하겠어요. 끈뽀는 거의 불가능하고 여자 쪽에서 피임을 해야 되는데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먹을 수도 없고. 관계를 갖는게 딱히 예고된 것도 아니고.” (이선정, 17세)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약국 가서 피인약을 어떻게 사요? 피임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쁜 짓이 아니고 이걸 하려면 피임을 어떻게 한다면지, 그런걸 나쁘지 않게 생각하도록.” (김희정, 16세)

이러한 인터뷰 내용을 볼 때, 단순한 피임 방법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왜 피임을 하며, 피임을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피임은 곧 생명 존중 사상과 직결된다는 등의 가치관 교육이 보다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내 몸의 주인은 나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왜 피임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때, 안전하고 당당한 성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 2. 미혼부

미혼모들은 미혼부의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더 이상의 적극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래 봐야 상황이 바뀔 것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만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솔직히 임신했다고 이미 끝난 사이를 등떡거리면서 니가 책임져 그것도 솔직히 욕심 같고 남자한테 매달리는 것 같구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개는 원래 그런 놈인데요 뭐. 괜히 내가 임신이라는 걸 더 많은 사람 등에게 양기기도 싫었구요. 내가 임신이라고 그러면 개가 어떻게 나몰지도 모르는 애고, 득뵈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선정, 17세)

“어차피 이런데 있어야 하는거는 똑같으니까, 언자가 상대가 누구냐고 묻는데 대답을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이 바뀌어서 언자에게 말을 했는데, 언자가 그쪽 집에 애기했더니 자기에 아니래요. 개네 아빠가 내 아들 자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언자나 하나요? 그런 내가 이사람 저사람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언자에게 그런 말 하나니까 너무 하나요” (김희정, 16세)

“아기가 나한테 있는 동안은 아빠 목소리나도 들려주고 싶을 때가 있지않, 아기가 떠나고 나면 엄청 증오하고 미워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 애라고 인정음 하더니 시간이 가니까 내 애지 다른 사람애지 어떻게 아냐고 이러잖아요” (이선호, 19세)

“임신했다고 오빠한테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빨리 확인하고 낙태하자고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키우기 어렵다고. 오빠 없이 키울 수 있다고 그랬더니 니 마음대로 하나구... 지금 은 오빠 여기 오지 않나 그랬어요. 자기만 편하게 지내는 것 같고 걱정감도 없는 것 같고.” (손호진, 19세)

미혼모들은 자기 아빠에 대해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미혼부들 대부분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혼모들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미혼부와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84년도의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미혼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로 미혼부와의 관계 지속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1.9%에 불과했었는데, 1996년의 부녀복지연합회의 자료에서는 미혼부와 더 이상 관계 지속을 원하지 않는다가 32.2%나 되면서,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은 큰 이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10대 미혼모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미혼부들의 연령 역시 낮아지고 있다. 10대 미혼모의 경우 임신 사실을 미혼부가 안 경우라도 대부분의 미혼부들은 유산이나 입양을 원하고(주연옥, 1997; 한영주, 1998), 심지어 자신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향이 높은 것도 10대 미혼부라는 상황과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금까지 미혼모와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미혼부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매일 전화오는데두요. 그냥 괜히 서운해요. 개는 서운에 있는데, 나는 시골에 있어서 여기 나가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있고, 개는 자유 생활하는데 나는 자유 생활하지도 못하고 그런게 너무 속상하고... 나는 친구들이 애 밴지도 모르고 아파서 어디 가 있는 줄 아는데, 자기는 친구들 만나고 다니고, pc방 가서 컴퓨터하고 이런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본한거예요.” (하나영, 17세)

“애기 아빠는 결혼하자고 하는데 전 글썽 잘 모르겠어요. 애기 아빠에 대한 감정은 좋다구 해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해야되나? 모르겠어요. 막 통타하면 친구들이 놀려가는데 막 자기도 갇다고 하면 짜증나요. 자기는 가고 나는 여기 있고.” (이아현, 17세)

미혼부들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면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계속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 결혼을 하자고 하는 경우라도 미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미혼모들은 자신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분노와 좌절을 경험한다.

그런데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미혼부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일반적인 남성이나 성관계에 대한 생각에 미친 영향이다.

“못 될을게 낚자구나 진짜 사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쳐봐야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거 느꼈어요... 낚자는 오내 두고 봐야 겠구나.. 책임을 질 수 있는 낚자인지, 아닌지” (배은현, 19세)

“사같은 티게 신중하게 사귀겨예요. 나중에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겨도 아 내가 해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유치하게 피해다니고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 말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거나 그 사람이 낚 좋아한다고 해도, 양사려고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야’ 하는 생각이 들때까지..”(김희정, 16세)

출산 후 사회에 나가서 남자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아예 남자는 사귀지 않겠다, 사귀더라도 부모님께 소개하겠다. 보다 신중하게 사귀겠다 등의 답변을 하였고, 성관계를 할 수도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하겠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즉, 현재 자신의 임신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의 결과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 상대 남성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혼모 중 한 명도 피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성적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미비한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함께 미혼부에 대한 상담과 미혼부의 책임에 대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혼모의 책임감이 높은 것은 결국 또 다른 무분별한 미혼부들의 행동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을 지우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혼모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아기와 입양, 그리고 낙태

#### 1) 입양 또는 양육

인터뷰를 한 10대 미혼모들에게 출산한 아기를 입양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이는 아이 양육이 앞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키우고 싶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나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 현실적 여건은 양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영주(1998)의 연구에서도 10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아기 장래를 위해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입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단지 이들이 바라는 것은 아기가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으며,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아이의 삶이 굴곡지게 될까봐 많은 염려를 하였다.

“아기에 대한 애정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에요. 기본 인신이 아니니까 뭐 태고 그런거는 별로 신경 안써요. 그냥 참 안됐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입양해서 잘 자라겠지, 그런 생각하구요. 남자 친구가 다 알았더라도 입양 시켰을 거예요. 지금 나이에 창창한 머내를 놔두고 아이를 키운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이선정, 17세)

그러나, 아기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다는 이선정양도 국내 입양을 희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기가 커서 생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좀 더 가깝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낳을 아기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이선효양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외국의 상황을 나름대로 비교해보고, 압박이나 편견없이 자기가 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외국을 선택하였다.

“저는 경제적 여건만 되면 아기 아빠 없이도 내가 기르고 싶어요. 사랑하기에 낳았고, 내가 키우고 싶었다고 아기한테 나중에 잘 설명하면 나중 이해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아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이선효, 19세)

입양을 선택한 10대 미혼모와 양육을 선택한 10대 미혼모의 차이를 비교한 윤미현(2000)의 연구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집단은 양육을 선택한 집단에 비해 아기를 입양시키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아기를 기르는데 따른 경제적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아기를 기르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양 선택 집단은 양육 선택 집단보다 자신의 최종 학력에 대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10대 미혼모에게 아이 입양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입양 전후에 미혼모들이 가지게 되는 아기의 미래와 아기를 버린 것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불안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기 낳기 전에는 애한테 정이 없었으니까 입양을 가던 말던

그랬는데, 막상 애를 낳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제가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차라리 멀리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인연이 있으면 만날 수 있겠죠. 내가 낳은 아이니까 내가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듣다가 주위의 시선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배은현, 19세)

“최종적으로 저희 가족들이 계속 고르라고 말할 끝에 어쩔 수 없이 그 입양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는 애 기보다는 저의 삶을 걱정하기 때문에. 애기가 많이 아프지 않음까 걱정이요. 그거랑요. 개 삶이 앞으로 저 때문에, 생명을 만든 자체가 죄스러운거예요 애한테. 근데 나중에 애가 컸을 때 애가 일반 가정처럼 태어날 게 아니라 저라는 타이틀 때문에 삶에 있어서 힘들까봐,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거 같아요. 저 때문에 불행해지까봐. 축복받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까봐 건강하지 못했다 할까봐 나 때문에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어” (지윤수, 16세)

“아기 키우고 싶어요. 키우려고 했다가 입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막 울었어요. 억울하고 분노해서. 오빠가 군대가고, 제가 애를 키우면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못하구요 꿈도 못 이룰 것 아니에요. 빨리 인생의 막을 내린다는 그런게 되거 아니에요, 애기 키우면서 살수 없잖아요. 애기 생각하면 눈물나요. 애기 장애 때문에 기도하기도 해요. 좋은 사람에게 입양되게 해달라고. 정말 잘 크고, 나중에 이런 거 알게 되면 언저 원망 안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구요” (하나영, 17세)

그러나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들도 막상 출산 후 아기를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양육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가진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입양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입양이 최종적으로는 미혼모 자신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적절한 상담이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양을 보낸 후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공황 상태를 경험한다. 겉으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관심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시달리며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 출산과 입양 후에도 이들에 대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낙태

인터뷰를 한 10대 미혼모들 중 한번도 낙태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미혼모들도 있는 반면, 시설 입소 후, 출산한 주변 미혼모들을 본 후,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출산한 후, 낙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 애기 떴려고 병원 갔는데, 초음파 검사하면서 아기



을 보니까 도저히 안티겠더라구요.”(이아현, 17세)

“그냥 애기도 귀한 생명이 있다. 뭐 그러잖아요.. 태아의 생명 어쩌구 그러잖아요. 티비에서 낙태 뭐 어쩌구 저쩌구. 그전거 신경 별로 안썼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너무 후회스러웠던 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내가 했다는 거 자체가. 뭐 나 그러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그랬던 거 같아요. 너무 생각이 어렸던 거 같아요. 나 잠깐 편하자고 애기 이렇게 지우고.. 한 생명을 죽이는 건데.” (김희정, 16세)

“여기 와서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수녀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니까 낙태를 하는 거는 미혼모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리스크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애기가 배속에서 노는게 느껴지니까 참 내가 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지윤수, 16세)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후회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보다는 운이 없어 임신한 것을 탓하고 빨리 낙태를 하지 않음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재임신 가능성과 낙태의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윤미현, 2000)에서 10대 미혼모의 낙태율이 86.2%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솔직히 낙태를 했어야 하는데, 낙태를 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솔직히 남자친구랑 자고 그런것보단 낙태를 빨리 안하게 더 후회가 되요. 여기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낙태가 생명을 죽이는거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왜 안지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김희정, 16세)

“빨리 낙태하지 않은 것 후회해요. 맨 처음에 긴가민가 하지않고 테스트 빨리 해서 수술 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그냥 하는게 더 낫았을 거 같아요.”(이아현, 17세)

인터뷰를 한 미혼모들은 낙태에 관해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가 불러오고, 주변에서 낳은 아기를 보면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낙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10대 미혼모들은 충동이나 호기심에 의해 성관계를 하고, 성과 임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미혼모가 되며, 이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문제로 임신 중절을 하지 못해 미혼모가 된다(주연옥, 1997; 한영주, 1998)는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볼 때 10대 청소년에게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피임 방법을 알고, 피임 기구를 자연스럽게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피임을 과연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문은 단순한 피임 방법뿐만 아니라 생명, 성에 대한 책임과 주체성,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강조하는 가치관 교육이 더 절실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4. 원망과 미안함, 나의 가족

인터뷰를 한 10대 미혼모들의 가족 상황은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에서 이미 밝혔듯이 양쪽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여서 한쪽 부모와 같이 살거나, 아니면 재혼하여 계부모와 같이 사는 형태였다. 설사 부모와 같이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한 10대 미혼모들은 그러한 자신의 가족(부모)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은 자신의 임신으로 가족들을 속상하고 힘들게 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고 있었다.

“언마가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웅더라구요. 언마 원망은 조금 들어요. 언마가 맨날 집에 안들어오고, 제가 좀 무서운을 많이 타는데 밖에 혼자 있으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기 싫어서 밖에 나가 친구들이랑 놀고 자고 오고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요. 언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런데 아버님도 살아봤는데, 할머니도 있고 삼촌들도 있는데요, 되게 눈치 보여요. 삼촌은 맨날 목하고 던지고, 할머니는 맨날 잔소리에 다른 친척들이랑 비교하고. 그래서 언마한테 혼자 다시 왔어요” (김희정, 16세)

“언마하고 오빠한테 제일 미안해요. 애기한테는 물론이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언마한테 나쁘게 하는 걸 많이 봐서 아빠는 너무 미워요. 언마랑 이혼하고 아빠랑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거요. 새언마한테만 잘하고. 그런 것 때문에 누가 그냥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게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아빠 탓이 커요” (배은현, 19세)

“언마, 아빠 사이가 안좋아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언마가 집나갔다 들어왔다 했어요. 한달에 서너번은 싸워서 집안이 난리가 났거든요. 어떤 때는 경찰까지 온적이 있고. 동네가 창피할 정도였어요. 언마가 집나갈 때마다 제가 애들 배두 해먹이고 집안일도 했어요. 근데 한번은 제가 바깥에서 전학한 언마에게 한가 나서 그렇게 할려면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혼하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집안일 다했죠. 중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언마, 아빠 때문에 말들이 많아서 학교 안두고 집에 있다가 가출해서 자취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다 임신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맨날 언마도 그러구요.” (김명숙, 16세)

10대에 미혼모가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성행동이나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환경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혼이나, 별거, 또는 낮은 소득, 잦은 가족 구조의 변경 등의 구조적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기능적 문제와 같은 가정적 요인이 미혼모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한영주, 1998; 배영미, 2001)에서도 그 중요성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10대에 임신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경험도 토로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부모님이 저한테 무관심하다 나 혼자만 내비두고 자기들끼리만 놀러 다니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되고 언마, 아빠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 전향도 자주 하고. 대학갈 때 나 언마 보기 싫어서 서울로 대학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되게 저속하구. 부모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손은진, 19세)

“임신한 거 알고 나서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의 저 마음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랬지?, 왜 바보 같은 짓을 했지? 근데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도 일의 해결이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지윤수, 16세)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서는 10대 자녀가 가출을 하거나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감소하지만, 설사 미혼모가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가족이 자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가족의 확립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는 건강한 가족을 형성,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미혼모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는 이들이 서로 화해하여 좋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5. 앞으로의 계획

인터뷰를 한 미혼모 중에는 임신하기 전에 이미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도 있고, 임신 때문에 할 수 없이 중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 모두의 가장 큰 열망은 퇴소 후 학교를 가는 것이었다. 그 중에는 유치원 교사, 복지사, 예니메이터, 디자이너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이런 꿈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저는 진짜 자퇴하는게 너무 싫었어요. 아빠가 자퇴 처치했다는 말 들었을 때 이제 내 인생 종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신이 아니라 아프다는 진당서만 땀 수 있었어도 학교 그냥 다닐 수 있는데. 그런 진당서 돈주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빠는 그걸 안했어. 내가 건정고시를 해서 합격할 자신도 없고.” (이선정, 17세)

“학교는 다시 복학해야죠.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들딸이 언마는 어디까지 졸업했냐고 하면 중학교도 졸업 못했다 그러면 언마나 쪽팔려요.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고 기술 배워 거예요. 미용학원이나 메이크업 같은거.” (김희정, 16세)

“제가 다닌 학교가 너무 언해 가지고 거기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자퇴서 쓰고 나왔거든요. 원래 그 학교를 1지망으로 가고 싶어했었어요. 그 학교로 다시 갈려면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들의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땀지 못 할거 같애요. 두 번 재로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원서를 한 번 써 보고 볼으면 거기서 다시 진학을 하려고요. 계획을 저는 다 짜 났어요. 저는 여기서 할 일이 없어요. 집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준비도 해 났어요. 여성복지 하고 싶어요.” (지윤수, 16세)

“학교 복학해서 다닐 거예요. 피아노 더 배워서 전문대 갈 수 있으면 전문대까지 나오기로 언마양 다 얘기했거든요. 금세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이아현, 17세)

“저는 원래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이랑 노는것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저를 잘 따르구요. 그런데 어떤 방면에서는 이 아이들이 다 내 아이다 생각하고 잘해 주어도 있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내가 낳은 아기를 너무 보고 싶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도 유치원 선생님은 너무 하고 싶어요.” (이선호, 19세)

본 연구에 참가한 미혼모들의 경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이며, 진로 계획이 미비하고, 이에 대해 더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김만지, 2000; East, 1996; Webb, 1994)와는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선행연구에서는 임신하지 않은 일반청소년과 그 결과를 비교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의 꿈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퇴소 후 이들은 대부분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퇴 후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복학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방황하면서 임신 전의 생활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혼모 보호 시설에서 하고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들은 미혼모들의 특성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종이 접기, 양재, 꽃꽂이, 선물 포장 등 10대 미혼모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한 보수적이고 단순한

내용으로 미혼모들의 직업 관련 욕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기간도 미혼모들이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받을 수 있는데 산전후 2-3개월이 고작이므로 실질적인 직업 훈련을 시킬 수가 없다.

10대 미혼모들은 성장 발달 및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시기이며, 특히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열망을 감안할 때, 그리고 이들이 시설과 같은 제한적 틀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보다 원만하게 복학을 하거나, 다른 대안적인 교육 여건이나 지역 사회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터뷰를 한 미혼모들이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바라는 것은 정확한 피임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성교육, 미혼모 가족들을 위한 상담, 미혼모 당사자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상담, 그리고 아기 입양과 관련된 정보 등이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것이다.

“피임하면 애들이 임신 안 하게 하는 거 그런 정도구요. 방법 자체를 몰라요. 저도 약 정도 있다는 것만 알아요. 구체적인 피임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힘들죠. 그러구, 막상 때 되면요 그런 도구가 없어요. 피임하고 싶어요.” (지운수, 16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는 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보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성희·한은주, 1998). 이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지나치게 생물학적인 내용으로만 치우치고 있으며, 학생들의 개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근육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임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성태도 및 성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Jorgensen, 1991), 실제적인 피임 지식과 함께, 의료 상담, 직업 교육, 부모 교육 등과 병행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 보니까 낯자 친구가 없으니까 여자는 애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이해 못해주고 그런 사정도 있구요. 그런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면히도 한 번 정도 더 앞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자기네한테 불평 많았다. 이런 거 저희는 욕먹는게 싫어요.” (하나영, 17세)

“미혼모가 낳았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미혼모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 그런, 이런 시설 상담받고 미혼모 상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리구 가족들에게도 너무 뭐 그러지 말라고 해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운수, 16세)

“양육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떤 입양이 좋고, 어떤 나라는 어떤 시설이 있고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자 센터 이런 것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선훈, 19세)

“주위에서 보면 미혼모는 딱 그거잖아요. 여거나 몹을 함부로 굴렀으면 임신이 텅가, 그런 식으로 보는 거. 여기 있는 분을 보면 어떤 분은 키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일이 잘 못되어 못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기가 그게 너무 힘들어요.” (배은현, 19세)

인터뷰를 한 미혼모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아기·아빠와의 결혼이나 아기의 양육이 아니었다. 단지, 미혼모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보여주고, 출산 후 자립을 위해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들은 10대 미혼모들의 출산 후 원만한 삶의 적응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 사회의 탓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해준다.

#### IV. 반성과 과제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선부른 결론이나 제언을 하기보다 인터뷰를 한 10대 미혼모들이 신실한 한 개인으로 성장, 적응할 길 바라는 마음에서 연구자들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들은 자신들의 성과 임신 관련 경험 속에서 많은 갈등과 모순을 느끼고 있다. 우선, 임신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낙태를 하려고 시도한 것이었다. 낙태가 여의치 않아 출산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시설에 입소한 후로 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임신인 것 같은 의심이 들었을 때 빨리 낙태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 것이라는 고백과 비슷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면 낙태를 할 것이라는 고백에서 이들이 임신, 생명, 낙태에 대해 여전히 혼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대에 서로 좋아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별로 변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임신과 관련하여 10대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또는 피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이라기보다는 책임감 없는 남자를 만난 탓으로 많이 돌리고 있었다. 미혼부에 대한 심한 실망감과 자존심 때문에 미혼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현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운 감정은 여전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 참가한 10대 미혼모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임신만 안되면 그만이지 10대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그들의 사고 방식과 성행동 결정시 자신의 의사보다는 상대 남성이나 분위기 등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신의 몸에 대한 주인 의식과 자신의 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예방책이 성교육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여전히 성교육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식의 성교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 인터뷰 참가자의 진술에서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는 있으나, 어떻게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욕구를 알고 배려하는가, 어떻게 성에 관해 의사소통하는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제도로는 사실상 10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문제를 학교나 가정에서, 그리고 전문 기관에서 마음놓고 상담하기가 힘들다. 임신 사실을 초기에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산전 관리가 소홀한 점을 볼 때, 이들이 임신 초기에 손쉽게 상담을 하고 적절한 관리를 함으로써 10대 미혼모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고위험 임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대 미혼모들의 부모들 역시 자녀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과제 중의 하나는 10대 초반부터 피임 교육이 불가피한 현실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뷰에 참가한 미혼모들의 첫 성경험의 연령이 13-15세임을 볼 때, 그리고 점점 10대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게도 피임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성관계시 피임을 하라는 식의 교육이 과연 적절한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쉬운 결정은 아닌 듯 하다. 또한 사후 피임약이 보급된 현재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이를 소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10대 미혼모들의 부모덕함과 무책임함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을 안타까워만 하기보다 청소년들에게 미래와 꿈을 심어주고 격려와 지지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보다 절실하다는 점이다.

- 접수 일 : 2002년 3월 15일  
 심사완료일 : 2002년 5월 29일

## 【참 고 문 헌】

- 김만지(2000). 미혼모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 환경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원·이해경(2000). 남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 현황에 근거한 성교육 방향의 모색. 2000년 법심리학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법심리학회.
-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 방향. 서울시 부녀복지연합회.
- 애란원(1998). 애란원 소식, 봄호.
- 윤경자(200).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 입양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석재(1985). 미혼모의 발생 원인과 그 자녀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희·한은주(1998). 청소년의 성문화 실태에 관한 연구-전북 지역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72-92.
- 주연옥(1997). 일부 보호 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국성문화연구소(1996). 남자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성문화연구소.
- \_\_\_\_\_ (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성문화연구소.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Davis, K. A. (1980). Theory of teenage pregnancy in the united states: *Adolescent pregnancy and childbearing*.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East, P. L. (1996). The younger sisters of childbearing adolescents: Their attitudes, expecta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2), 267-282.
- Jorgensen, S. R. (1991). Project taking charge: An evaluation of an adolescence prevention program. *Family Relations*, 40, 373-380.
- Kisane, B. (1980). *The teenager and the family planning experience: Adolescent pregnancy and childbearing*. Washington, D. C: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 Levering, C. S. (1983).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s: An introduction. *Child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82-185.
- Newcomers, S. F., Gilbert, M., & Udry, J. R.(1980). *Perceived and actual same sex peer behavior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agner, C. A. (1980). Adolescent sexuality. In J. F. Adams(Ed.). *Understanding adolescence: Current development in adolescent psychology*(pp. 295-297). Boston, MA: Ally and Bacon.
- Webb, W. (1994). Teen sexuality: Empowering teens to decide. *Policy Studies Review*, 13, 127-139.
- Young, L. (1964). *Out of wedlock: A study of the problems of unmarried mother and her child*. New York: McGraw-Hill.